

1. 정체성의 정의 및 개념적 이해

1.1 Erikson의 정체성 개념 및 발달이론

Freud는 정체성(identity)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언급한 학자이나, Erikson은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에 보다 폭넓은 관심을 집중시킨 최초의 학자이다. Freud는 ‘유태인의 내적 정체성’이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정체성이라는 말을 최초로, 그러나 한 차례만 사용하였다. Erikson은 2차 세계대전에서 귀환하는 병사들의 심리적 삶에서 일어난 중심적 장애를 기술하기 위해 자아 정체성(ego-ident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rikson은 자아 정체성(ego-identity)을,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연속성과 단일성을 지닌 주관적인 느낌’으로 개념화하였고, 개인적인 정체성의 의식적 감각, 개인적인 성격의 연속성을 추구하는 무의식적 지향성, 자아통합 활동의 기준, 특정한 집단의 이상과 정체성에 대한 내적일치 등으로 정체성의 내용을 표현하였다(Erikson, 1968).

Erikson은 의식적인 과정과 무의식적인 과정 모두와 관련해 정체성을 언급하였다. 즉 개인적 특성의 연속성에 대한 무의식적인 추구 뿐 아니라, 개인 정체성의 의식적인 의미로서 정체성을 언급하였다. Erikson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욕구 및 흥미와 방어, 개인이 거주하는 문화적 환경으로 파악하였고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Erikson의 정체성은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주관적 측면은 개인적 정체성으로서 시간의 경과 속에서도 자기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자각함과 동시에 자기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타인이 인식한다는 사실의 자각을 뜻하고, 객관적 측면은 보다 사회적 정체성으로서 자기가 관계되어 있는 집단과 사회에 대한 일치성을 뜻한다.

Erikson은 정체성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즉 개인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이 상호 충족 및 보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였는데, 두 정체성의 상호보완이 개개인의 자아의 통합력을 강하게 하고 사회조직의 발전을 이룩해 가며 쌍방에 활력을 불어넣음을 인디언 부족의 부족 정체성 형성과정, 잠수함 승무원들의 개인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 간의 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Erikson은 개개인의 자아의 발달과 사회, 역사와의 상호성이 일치되지 않을 때 정체성의 병리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는 여러 역사적 원형이 개개인의 자아에 어떻게 받아들여져 통합 혹은 분열되는가를 이민 1세대가 지닌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유아기의 체험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옮겨

받은 2세 미국인의 정체성 갈등, 미국 사회 속에서 유대인 및 흑인들에 대해 형성시킨 ‘악의 정체성(evil identity)’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유대인 및 흑인들의 갈등, 미국 남부인들과 북부인들 간의 정체성의 갈등 등의 미국사회 내 갈등을 통해 논하고 있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볼 때 Freud의 구조적 이론에 의하면 자기 실현(self-actualization)은 만족을 추구하려는 본능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아와 초자아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환경적 힘과 반대된다는 가정을 포함한다. Hartmann과 다른 자아 심리학자(ego-psychologist)들은 자아의 자율적인 역할을 정교화 함으로써 정체성 형성은 자기 실현과 사회적 정의 간의 갈등으로 여겨질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자아의 구조화 및 통합적 기능을 강조하였는데, 이 기능을 통해 자아는 자기의 관점에서 생물학적, 사회적 압력을 아우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같은 이론의 연장선 속에서 Erikson은 개인의 생물학적인 요구와 사회의 요구 간 상호성이라는 개념을 주장하였고 이 개념을 통해 자기 실현과 사회적 정의 간 패러독스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였다(Tabachinick, 1965).

Erikson 이후, 위의 두 갈래 정체성은 각기 다른 학문 영역에서 다루어져왔다. 즉 정신의학자나 심리학자들과는 달리, 사회학자들과 사회심리학자들은 집단 정체성, 즉 정체성의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확장시켜왔다. 이들은 집단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가지는 집단 가치 및 특성의 동일시 및 내재화를 강조했다. 이는 민족이나 국가 같은 보다 큰 집단 뿐 아니라, 개인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 개념과 관련된다.

Erikson은 인간의 심리적 발달의 8단계에 대한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수립하면서 이 단계 중 하나로서 정체성 형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의 8단계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순서대로 전개된다. 이 순서는 점성원칙에 의해 주도된다. 점성 원칙이란, 성격 성장이 사회적 상호작용들을 점점 확대시켜가는 청사진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계 중 다섯 번째 단계인 자아 정체(ego-identity) 대 역할 혼미(role confusion)는 일반적인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2-20세에 일어나며 이 단계에서 청소년들은 이전 단계에서 습득한 정보와 기술들을 다져서 궁극적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남들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자기상과 자기가 스스로 부여하는 자기상,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자기상들을 조화시키고 통합시킴으로써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게 된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다면 정체성 혼미 혹은 정체성 위기의 상태로 남게 되며 이것은 이후 성인기 발달에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안창일, 2004). Erikson의 이러한 발달 단계는 이후 정체성 연구에 있어 기본적인 근간이 되었다.

1.2 자아심리학(ego psychology)

Hartman을 비롯한 정신분석학자들은 자아심리학(ego psychology)이라는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면서 전통적인 정신분석의 조망을 보다 확대하고 수정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인간 행동의 결정요인으로 자아와 자아의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에 더 많은 관심을 두며, 자아 기능(ego function)은 무의식적 동기와는 비교적 독립적이라 하였다. 즉, 자아가 외부 세계의 영향으로 수정된 원초아(id)의 일부이고, 갈등이 자아 발달에 핵심적이라는 Freud의 주장에 반대하였고, 어떤 자아 기능은 날 때부터 가능하고, 갈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인 자율성(primary autonomy)을 가지며, 갈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conflict-free sphere)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Hartmann은 중성화(neutralization) 개념을 통해 자아가 자체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으며, 높은 활동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는데, 자아는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환경(average expectable environment)이 제공된다면 그 환경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타고난 적응(adaptation)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이용승, 2004).

Hartmann은 자아(ego), 자기(self), 자기 표상(self-representation) 간 개념적인 구분을 하였는데, 자아는 성격의 하위 구조이거나 체계이고, 자기는 전체 인간이며, 자기 표상은 대상 표상에 대응하여 존재하는 자아 체계의 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Jacobson은 심리 구조로서의 자아, 전체 인간으로서의 자기, 그리고 자기와 대상 표상 간을 구분하는 Hartmann의 구분에 찬성하였고, 이러한 개념들이 특히 초기의 심리 발달동안 내재화 과정과 정신병리 형성의 이해에 유용하다고 보았다. Jacobson의 영향을 받은 Kernberg는 자아심리학과 다양한 대상관계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바로 아동의 정체성 출현과 장애에 관한 주제가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Erikson은 정체성 형성과 자아 발달이 일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정체성은 심리성적인 발달과 구분되는 심리사회적인 발달의 한 부분으로, 아이가 태어난 문화권의 가치관과 요구에 따라 아동의 양육 방식이 결정되고 그 양육 방식에 따라 아동의 경험과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아는 각각의 발달 단계가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을 획득함으로써 심리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Hartman은 고전적인 정신분석에서 기술된 자아의 개념을 기능에 의해 조작적으로 정의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과정으로서의 자아의 개념을 보다 정교화시켜 포괄적인 것으로 확대했고, 이후 Rapaport에 의해 자아의 기능이 더욱 강조되면서 자아심리학은 이상 행동 뿐 아니라 정상적인

성격과 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행동의 일반적 이론으로 발전되어왔으며, 이와 함께 자아도 개인의 심리적 특성, 발달 상의 조건, 그리고 적응-부적응의 정도에 따라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는 기능적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3 자기(self), 자아(ego), 정체성(identity), 성격(personality)

앞서 언급했듯, Hartmann은 자아(ego), 자기(self), 자기 표상(self-representation) 간 개념적인 구분을 하였는데, 자아는 성격의 하위 구조이거나 체계이고, 자기는 전체 인간이며, 자기 표상은 대상 표상에 대응하여 존재하는 자아 체계의 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또는 일반적으로 개인은 자신을 여러 개의 ‘...로서의 자기(self)’로 표현할 수 있다. 즉 개인은 복수의 자기(selves)를 지니고 이를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여러 개의 자기의 기저에는 ‘...로서의 자기’ 이전의, 역할이나 상황에 따라 연출되는 것이 아닌, 근원적인 자아(ego)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정체성 역시 개인이 속한 중요한 여러 집단과 관련해 존재할 수 있다. 성 정체성이나 국민 정체성 등이 집단(group) 정체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 정체성 기저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집단과의 연결이 가능할 수 없는 보다 심층적이고 개인적인 정체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체성 중에서도 자아 정체성(ego-identity)의 부분이라고 개념화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격(personality)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지속적인 독특한 특성’이라고 정의한다(Mischel, 1986). 이는 정체성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으나, 성격의 경우 정체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과 유사한 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1.4 Marcia의 정체성 지위(status)

Marcia는 Erikson의 정체성 이론을 발전시켜, 특히 청년기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에 공헌하였다. 그는 정체성 성취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두 가지 심리사회적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하나는 의미있는 결단을 내리기 위해 고민한 위기(crisis)의 시기 여부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신념을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관여(commitment)의 정도이다(Marcia, 1966). Marcia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총 4가지 유형으로 정체성 지위(identity status)를 구분하였는데 그 4가지 유형은 정체성 획득(identity achievement), 정체성 유예(identity

moratorium), 정체성 폐쇄(identity foreclosure), 정체성 혼미(identity diffusion)이며 각 유형의 구분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김형태, 1989).

첫째, 정체성 획득(identity achievement)형은 위기와 관여가 모두 있는 유형이다. 즉, 위기를 경험하고 일정한 직업과 이데올로기를 자기의사로 선택한 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경우, 의사결정이나 선택이 부모의 희망과 같다 해도, 그것은 신중한 검토와 고민의 과정을 거쳐 해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스스로 선택한 것에 자신감을 갖고 급변하는 환경과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안정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한다.

둘째, 정체성 유예(identity moratorium)형은 위기는 있으나 관여가 없는 유형이다. 즉, 현재 위기 경험 중에 있어 의사결정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정한 결정이 없기에 관여의 정도는 애매하고 초점이 없다. 그러나 자기선택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정체성 혼미와는 구별된다.

셋째, 정체성 폐쇄(identity foreclosure)형은 관여는 있으나 위기가 없는 유형이다. 즉, 어떤 의사결정의 위기경험이 없으면서 특정한 직업과 이데올로기에 적극적으로 관여된 상태이다. 자기와 부모의 목표 간에 불화가 없고 모든 경험이 유아기 이래의 자기신념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경직성이 특징이며 적극적 관여와 허세부리는 태도로 인해 마치 획득형처럼 보일 수 있으나 부모의 가치관이 통용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면 즉시 당황하고 혼미에 빠진다. 이 유형의 특징은 의사결정의 위기가 분명치 않은 것이다.

넷째, 정체성 혼미(identity diffusion)형은 현재의 위기와 관여 모두가 없는 유형으로, 과거 위기의 경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위기 전 혼미형은 지금까지 자기가 진실로 어떤 인간이었든가의 검토경험이 없기에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곤란한 경우이다. 부모의 방임적 교육태도, 즉 성장 과정에서 본보기가 없고 자녀와 부모를 비교할 수 있는 일관된 모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이다. 위기 후의 혼미형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상태로서 무기력해져있는 상태이다.

표 1. 정체성 지위 구분

지위	위기	관여	개요
정체성 획득	경험했음	관여되어 있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몇 개의 가능성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해결, 이러한 해결에 따라 해결
정체성 유예	위기 중	관여하려고 함	몇 개의 선택에 방황하나 이의 극복을

			위해 노력
정체성 폐쇄	경험하지 않았음	관여되어 있음	융통성이 없는 경직, 부모의 목표와의 불협화음이 없음, 어떤 체험도 유아기 이후 신념을 보강하는 것으로 충분
정체성 혼미	경험하지 않았음	관여되어 있지 않음	위기 전: 자기가 누구인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
	경험했음	관여되어 있지 않음	위기 후: 모든 것이 가능했고 지금까지 무엇인가 해왔지만 현재 자신이 가진 무력감으로 인해 어떠한 일에도 관여하지 못하고 있음

Waterman(1982)은 Marcia가 제시한 유형들을 기초로 하여, 정체성 발달 양상을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체성 수준의 변화와 발달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출발점에 의해 11개의 가능한 과정이 있다. 첫째, 정체성 혼미형에서 출발하는 경우, 여러 종류의 정체성을 추구하기 시작하여 유예형으로 진전될 수도 있고, 제시된 가능성만을 그대로 따라감으로써 폐쇄형이 될 수도 있으며, 혼미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다른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폐쇄형의 상태에서는 부모와 사회에 순응하다가 선택과 결정의 고민이 시작됨으로 유예형이 될 수 있고,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인생목적을 계속 유지하려 할 때엔 폐쇄형이 지속되며, 지금까지 수용하고 지 지했던 일들에 대한 의미를 잃고 가치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면 혼미형으로 후퇴한다. 셋째, 유예형의 상태에서는 탐색 과정을 정리하고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설정되어 관여하기 시작하면 성취형이 되고, 탐색의 노력을 포기하고 혼돈으로 침체되면 혼미형으로 퇴보한다. 넷째, 성취형의 상태에서는 자신의 목표와 가치관에 요동없이 집착하여 헌신이 지속되면 성취상태의 지속이고, 이전의 성취에 대해 재검토와 회의가 생기면 유예형 상태로 되돌아가며, 지금까지의 관여와 성취 및 자기 존재에 대해 확신을 잃고 무력해지면 혼미형 상태로 회귀된다. 이렇듯 정체성 지위는 발달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1.5 집단 정체성 (group identity)

집단 정체성(group identity)은 사회적 특정 범주와의 관계에서 개인이 가지는 심리적 관계이다. 대표적인 집단 정체성으로는 성(gender), 인종(race), 민족(ethnic), 계급(class), 국가(nation) 정체성 등이 있다.

집단 정체성의 초기 연구자들은 이 집단적 의식을 생리학적 속성, 심리적 경향, 지역적 특성, 혹은 구조적 위치로부터 파생되는 ‘타고난(natural)’, 혹은 ‘본질적인(essential)’ 것으로 보았으나,

이후의 집단 정체성 연구들, 특히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에 기반을 둔 연구들은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모든 집단적인 의식은 사회적 산물이라고 파악하였으며, 특히 성 정체성 형성과 관련해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구성주의자들은 성을 사회적 맥락에서 언어적 교환과 사회적 수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협상되어지는 정체성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스트(post-modernist)들은 구성주의는 단순히 정체성 구성 과정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구성주의적 접근은 정체성 범주를 이미 내포하고 있고, 범주 체계 자체가 가지는 힘의 역할을 과소평가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여성’의 하위 범주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나눈다고 해서 본질주의(essentialism)를 배제할 수는 없으며, 여성의 하위 범주들 간 분산은 여성이라는 여러 집단 정체성 간 분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Cerulo, 1997). 대표적인 집단 정체성들의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은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개인의 심리적 감각(sense)을 말한다. Kohlberg는 성 정체성을 ‘소년’, 혹은 ‘소녀’로서의 인지적 자기 범주화로 정의하고, 3단계 획득 과정을 주장했다(Frable, 1997).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아동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정확히 명명(label)하는 것을 배운다(성 정체성, gender identity). 두 번째, 아동은 소년이 남성 어른이 되고 소녀가 여성 어른이 된다는 것을 배운다(성 안정성, gender stability). 세 번째, 아동은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것이 영구적인 것이며 문화적인 성 단서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다(성 항구성, gender constancy). 이와 유사하게, 또 다른 연구자들은 아동이 성 정체성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은 다음의 4가지 과제를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자신과 타인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명명, labeling), 정체성이 계속 지속되며(안정성, stability), 정체성은 소망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동기, motive), 정체성의 영구성은 옷이나 머리모양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는 것(항구성, constancy)을 인식하는 것. 초기 아동기 이후의 성 정체성 발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Katz(Frable, 1997)는 사춘기와 성인기를 포함한 4개의 이정표로 구성된 성 정체성 발달 모형을 제안하였고, 이 시기의 사건들은 개인의 성 정체성의 정교화 및 변화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민족(race) 및 인종(ethnic) 정체성은 다민족 및 다인종으로 구성된 나라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Phinney(1990)는 인종적 자기 동일시(ethnic self-identification), 소속감(sense of belonging), 자신의 인종 집단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one's own ethnic group), 사회적 참여 및 문화적 관습(social participation and cultural practice) 등이 인종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그는 인종 정체성에 대한 연구들을 개괄하고, 연구들의 결과는 인종 정체성 구성요

소 간 관계에서 서로 불일치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인종 정체성 측정을 위한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의 부재, 실험 및 종단적 연구의 부족, 상황맥락적 변인(예: 사회경제적 위치)을 고려하지 않는 것 등을 연구들이 봉착한 이슈라고 결론지었다. 인종 정체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정체성 발달(identity development),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문화변용 이론(acculturation theory)이 있다(Howard, 2000).

정체성 발달의 관점에서 파생된 흑인 정체성 모형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서 일어나는 특정한 정체성 변화를 설명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개인은 검증되지 않은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점차 종족이나 인종이 문제가 되는 경험을 겪게 되면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종족 및 인종 정체성을 탐구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개인은 종족, 인종,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위치를 평가하게 되고, 그것을 다른 정체성과 통합시키게 되는데, 이 발달적 순환 주기는 전 일생을 통해서 반복해 일어난다. 비단 흑인 정체성 모형 뿐 아니라, 다른 인종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의 모형이 존재한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은 개인이 집단 구성원이라는 관점에서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정도에 초점을 둔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은 개인은 두 개의 차원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하나는 다양한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자신의 독특한 특징들이다. 이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인종 정체성은 문화적 배경 등의 환경적 구조에 의해 지지되고 개인이 처한 사회적 맥락이 변화함에 따라 변화하며 정체성 협상을 통해 그 중요도가 변화한다.

문화변용 이론의 관점 내에서 두 개의 정체성 모형이 존재한다. 단선적 모형(linear model)에서는 개인은 새로운 문화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원래 문화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고 본다. 이차원 모형(two-dimensional model)에서는 개인은 원래 문화와 새로운 문화 모두에 각각 관련되어 있으며 이 두 개의 관련은 서로 독립적인 차원이라고 본다.

1.6 최근의 흐름

최근 Schwartz(2005)는 정체성 연구의 대부분이 Marcia(1966)의 정체성 지위 패러다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체성 연구의 명백한 한계임을 지적하였다. Schwartz(2001, 2005)와 van Hoof(1999)는 정체성 지위 연구는 원래 Erikson의 정체성 개념의 부분만을 다루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Erikson은 정체성을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 간의 집합적인 프로젝트로 묘사하였고, 세 가지 다른 수준의 정체성을 언급했음을 환기시켰다. 요약하면, 이 세 가지 다른 수준의

정체성은 자아 정체성, 개인적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인데, 자아 정체성(ego identity)은 가장 심층적인 것이며 정체성 형성에 기저하는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Erikson은 이 과정을 조용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측정가능하지 않다고 암시하였다.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은 개인의 목표, 가치, 믿음 등의 집합체로, 정체성 지위 이론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체성 지위 이론이 주목하지 않는 개인적 정체성의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개인이 바깥 세상에 대해 표방하는 ‘자기’와 이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이다.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은 개인이 사회적 세상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협상하는 과정 뿐 아니라, 집단 동일시(group identification)와 사회적 세상에서 개인에게 할당되고 선택된 자리(역할)를 말한다. 예를 들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것은 주어진 문화적 맥락에서 주어지는 기대를 수반한다. 그러나 또한 개인은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것의 의미와 개인적인 중요성을 정의하는 많은 여지를 지닌다. 이처럼 Erikson은 할당된 정체성 요소와 그 할당된 정체성 요소에 개인이 부여한 의미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으나, 정체성 지위 이론은 개인 정체성의 부분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였으며, 이는 정체성 지위 이론의 중요한 약점이라는 것이다.

Berzonsky와 Adams(1999) 역시 지난 35년 간 발표된 정체성 발달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한 후, 기존의 정체감 이해를 위한 패러다임을 넘어선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정체성을 타인으로부터 분리되고 독립함으로서 확립하는 것으로 파악한 기존의 시각과 달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정체감 확립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러한 관계성을 고려하는 시각은 여성의 정체성 발달을 설명하는데 기여하고 있는데, Cramer(2000)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정체성 확립이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2. 한국인의 정체성

2.1 한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 한국인

‘한국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 국내 학자들이 한국인의 고유한 특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본 연구들이 존재한다.

그 중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로는 윤태림(1970)의 ‘한국인의 성격’이 최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윤태림은 이 저서에서 한국인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1) 체질 인류학적 특징, 2) 풍토, 3) 언어, 4) 주술적 경향, 5) 유교, 6) 불교, 7) 관원의 가학적·악용적 경향, 8) 민중의 과학적 경향, 9) 경제적 요인 등 9가지를 들고, 이러한 요인들로부터 파생된 한국인의 성격의 특징으로서 지나친 감수성, 과거에의 집착, 권위주의, 체면, 공리의 추구(현세중심), 불안의 미만, 기지, 예술성 등 8가지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김성태(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회, 1997에서 재인용)와 정양은(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회, 1997에서 재인용)은 마음의 이치에 관한 생각들[心學]을 심리학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김성태는 ‘성숙인격론’에서 조선 초기 성리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성인상을 서구의 심리학 이론에서 주장하는 성숙 인격의 특질들과 비교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성숙 인격의 소유자로서 이순신과 이상재의 인격을 소개하였다. 또한 ‘경(敬)과 주의(注意)’에서는 성숙 인격의 바탕으로 성리학의 개념인 경(敬) 상태를 강조하고 이 경(敬) 사상이 시사하고 있는 성숙 인격상은 생성성(生成性), 예비성(豫備性), 적정성(適正性)을 지니는 사람됨이라고 하였다.

정양은(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회, 1997에서 재인용)은 심리적 사실을 파악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 사이의 차이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감정론의 비교연구’에서 경험주의적 지적 위주인 서양 사상에서는 정(情)을 경험적 사물들 중에서 쾌, 불쾌의 의식을 수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불교에서는 진지(眞知)를 감득(感得)하는데 장애되는 요인으로 이해하였으며, 유교 사상에서는 심(心)의 지각에 대한 성(性)의 반작용 전체를 정(情)이라 하였음을 밝혔다. 또 유교 사상에서는 정을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으로 나누었는데, 이때 사단(四端)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정(情)으로 사회적 정(情)이라 할 수 있고, 칠정(七情)은 물리적 자극 환경에 대한 심(心)의 반응의 내용으로서 비사회적 정(情)이라고 분류하였다.

임능빈(1991)은 ‘성격이론의 일연구-유교를 중심으로-’에서 유교의 성격 이론은 1) 정상적인 면을 강조하고, 2) 인간에 대한 낙관적 관점을 가지며, 3) 자기실현의 동기와, 4) 자아 개념을 강조하고, 5) 인간관계의 핵심요소로 진지성과 공감성을 중요시하며, 6) 성숙 인격의 성격 특질로서

희열의 차원을 강조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한국인의 특성 및 성격 등을 직접적으로 탐구한 것은 아니나 한국인의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 및 한국인의 이상적인 성격을 알아보기 위한 단서를 유학자들의 저술에서 찾아 개념화하려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특성 및 심리를 파악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차재호(1994)는 ‘지난 백 년 간의 한국인의 가치, 신념, 태도 및 행동의 변화’에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22명의 관찰 기록을 내용 분석하는 방법을 통하여 19세기 중반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100년 간 한국인의 가치, 태도, 행동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10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된 행동 차원들을 확인하고 이것들을 한국인의 성격의 피상적 측면들로 제시하였다. 이들은 각기 1) 높은 정서성, 2) 의존적 태도, 3) 친화에 대한 높은 관심, 4) 후한 인심, 5) 비합리적 사고, 6)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이다.

이수원(1995)은 ‘한국인의 인정(人情) : 그 심리학적 함의’에서 한국인의 인간관계에는 인정으로 표현되는 공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정이란 나와 너가 해체되어 우리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 상태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가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단위임을 전제로 하는 서구 심리학의 인간관계의 교환이론은 적용될 수 없으며, 비교환적 또는 초(超)교환적 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인정은 서구 사회의 공정과 대비되는데 인정과 공정의 두 덕목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서로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인식의 틀을 확대할 때 상호 공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상진(1993)과 최상진과 유승엽(1992)은 한국인의 사회심리가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연구에서 한국인의 사회심리의 특성으로 정(情), 한(恨), 체면, 눈치 등을 들었다. 이들은 이러한 특성들이 한국인의 자기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중, 한(恨)의 경우, 집단 속에 있는 내가 성원으로서 맡은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분의 수행이 어렵거나 좌절되는 경우에 한(恨)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한국인에게 한은 개인적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집단 속에서 발생하는 집단적인 것이므로 우리가 함께 살려면 반드시 한을 풀어야 하고, 우리 속에 있는 각 성원들은 자기의 맡은 직분을 유감없이 수행함으로써 한을 풀어줄 의무를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최재석(1994)은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생활태도 및 생활 양식을 분석하여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으로서 가족주의, 감투지향주의, 상하서열의식, 친소구분의식, 공동체지향의식 등 다섯 가지 특징을 들고 있다.

어떤 연구들은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한국인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을 아우르는 한국 문화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박재환과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2004)는 한국인의 전통문화의 특징

으로 1) 인간 본위의 문화, 2) 주기적 시간과 순응양식, 3) 가족주의와 내 집단 의식, 4) 범신론적/상대주의적 세계관, 5) 비언어적 교류를 중시하는 경향, 6) 전일적/융합적 사고와 교류, 7) 현재적 삶의 강조를 들고 있다. 더불어 현대 한국 사회의 일상적 삶의 구성원리로서 1) 금전만능주의와 상품화된 일상, 2) 성역 부재의 극단적 평등주의, 3) 결과우선주의, 4) 속전속결주의, 5) 현장주의/현세주의, 6) 몰개성적 합일주의를 들고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권석만(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회, 1997)은 1)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의존적 또는 상호의존적 문화, 2) 자신의 고통회복이 초자연적인 신이나 자연환경 및 신체적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투사적 문화, 3) 유교적 전통에 영향을 받은 권위적 문화, 4) 감정의 표현을 자제하는 억제적 문화, 5) 의사소통의 많은 부분이 비언어적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언어적 또는 음성적 문화 등을 한국 문화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들고 있다.

그런데 한국 문화의 특징 중 ‘집단주의’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었다. 이종한(2005)은 인간관계와 관련된 조선조의 역사적 고찰 내용 및 현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이 집단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재 젊은 세대의 인간관계가 기성세대의 인간관계와는 다르며 이는 앞으로 주시해야 할 과제임을 언급하였다. 조궁호(1996, 1997, 2004) 역시, 집단주의의 사상적 연원을 유학 사상적 배경에서 찾으려 하였고, 이러한 집단주의 문화는 한국인으로 하여금 집단주의 규범에 따라 자기의 결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결과 이로부터 오는 부적 정서를 승화시킴으로써 자기 회의나 자기 모멸에 이르지 않고 부적 정서를 용인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한국인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의존성, 자기억제, 행위의 가변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타인지향동기, 욕구통제동기, 자기개선동기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몇몇 연구자들은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와 한국인의 성격 간의 연결고리를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소은(1999)은 한국 문화의 특징을 양육 및 모자관계와 연관지어 어떻게 문화가 한국인의 성격을 형성하는가를 탐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독특한 문화 역사적 배경을 통해 한국인은 상호의존성, 귀속성 및 권력추구라는 사회문화적 규범을 발달시켰고, 이러한 문화적 가치는 한국의 아동양육에 반영되어 한국의 모자관계는 상호결속 및 유대, 귀속으로 특징 지워지고 개인의 미분화로 인한 자녀를 통한 대리성취의 추구로 요약된다고 보았다. 또한 궁극적으로 자녀양육방식이 한국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가치인 집단주의 및 우리 의식으로 연결되는 등, 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규범은 그 사회의 아동양육방식에 투영되고, 아동양육방식은 그 사회에서 유능한 성원을 기능하기에 적합한 인간을 재생산한다고 보면서 문화와 아동양육 간의 연결을 강조하였다. 이와 유사한 흐름으로 김의철과 박영신(1998)은 한국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과 원인지각양식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한국 학생과 성인 모두 성공하는데 부모의 도움이 가장 중요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고하였고, 한국인의 성취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효도 및 부모의 정서적 지원 등 부모-자녀 관계의 역동을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같은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청소년과 부모 간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이유를 탐구한 연구 결과, 한국 청소년이 부모를 신뢰하는 이유는 ‘희생’, ‘혈연관계’, ‘존경함’ 순으로 나타나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이 시사되었으며, 부모가 청소년을 신뢰하는 이유는 ‘성실함’, ‘정직함’ 등의 도덕성 측면과 더불어 ‘부모에게 순종함’, ‘학업에 충실’인 것으로 보고 되어, 한국 청소년의 경우 학업에 충실한 것이 성취 자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방법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박영신·김의철, 2003).

한국인을 파악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방식은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들여다 봄으로써 한국인의 일상으로부터 나타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국민성이나 사회적 성격을 논하는 것은 변화하는 실제적 삶의 동태를 파악하는데 적절하지 않으며, 한국인의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이 개별적인 한국인의 성격이나 심리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기 보다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인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는, 그러나 현대의 한국인에게서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삶의 단면들을 기술하고 요약하고 있다. 박재환과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2004)는 출생, 죽음, 자살, 정년 등 인생에서 경험하는 일들에서 현재 한국사회가 나타내는 모습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한국인의 특성을 여러 학문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형태의 연합적인 문헌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국제한국학회(1998)는 ‘놀이 문화와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술 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일상과 일탈’, ‘한국 사회와 종교’, ‘한국어에 반영된 유교 문화의 특성’, ‘한국 사회와 여성의 삶’ 등, 여가학, 종교학, 여성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접근하는 한국인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루었다.

언론 매체가 실시하는 한국인의 의식에 대한 대규모의 설문 및 인터뷰 조사는 주로 사회정치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비교적 최근의 설문 및 인터뷰 조사로, 중앙일보사가 2005년 10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인은 한민족보다 대한민국을 중시해 혈통보다 국적에 대한 자부심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빈-부, 여-야, 노-사 간 적대감이 크며, 중산층 의식은 줄고 하층민 의식이 확산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성취, 스포츠 및 예술 분야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며, 강한 한국에 대한 열렬한 욕구를 지니고 있고, 주변국들에 대한 배타적 불신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해, ‘나는 다른 어떤 나라

사람이기보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는 진술에 대해 70.5%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대체로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계인(27.1%)이나 아시아인(44%)으로서의 의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05).

한국인의 성격 및 심리 특성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한국인의 심리 및 여러 사회적 특성을 다른 문화나 국가와 비교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이들 연구들은 다양한 구체적 영역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가호(1999)는 ‘첫부모됨과 영아기 육아에서의 문화 간, 세대간 연속성과 비연속성: 한국, 중국, 미국 가족을 중심으로’에서 전통적으로 유교 중심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 홍콩의 아동 양육과 전통적으로 기독교 중심 문화권에 속하는 미국의 아동 양육 문화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 한국은 출산 전 관행에서 다른 문화에 비해 태교를 통한 심리적 측면에서 부모됨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고, 양육 신념과 관련해, 자녀와의 물리적 친밀성을 강조하는 상호의존성의 특성과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는 독립성의 특성 모두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은기수(2004)는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등 5개국을 대상으로 가족가치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한국의 경우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부모의 희생보다는 부모 자신의 삶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다른 점이며 한국이 가치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육성필(1994)은 ‘성격의 5요인 이론에 기초한 척도의 구성을 위한 예비연구’에서 한국인에게서 서구문화권과는 달리 5개 요인 중 성실성이 외향성이나 친절성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가장 약하게 드러난다고 보고하였다.

김창대(1997)는 한국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문제해결방식을 조사한 결과에서, 한국인은 미국인에 비해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정도와 집단주의가 의미있게 높았으며, 한국인은 미국인보다도 정서지향적이고, 주어진 역할에 의존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은 미국인에 비해서 정신적으로나 행동적으로 문제상황을 피하고 문제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며 자신의 한계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은 미국인에 비해서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사회적인 조력을 구하려는 노력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들이 일반적이며 정상적인 한국인에 대해 논하고 있다면,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임상 장면에서의 한국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한국인의 정신장애 환자들은 다른 문화권에 비해 호소 증상 중 신체화 경향이 강하다는 임상적 관찰과 연구 보고가 다수 있었다(김광일, 1972; 김명정·김광일, 1984; 박제순·이근후, 1981). 또한 한국인, 연변조선족 및 중국인

을 대상으로 정신분열증의 망상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망상, 과대망상, 죄책 망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Kim, K. I., Li, D., Jiang, Z., Cui, Z., Lin, L., Kang, J. J., Park, K. K., Chung, E. K., & Kim, C. K., 1993).

이러한 한국인의 성격 및 심리 특성을 다룬 많은 연구들은 언론 매체가 실시하는 대규모 조사의 경우 및 임상 장면에서의 환자군의 특성 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주로 문헌 연구 및 직관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연구방법 상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2.2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 한국인

한국인의 고유한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더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한국에 대한 80,000 건의 참고 문헌을 망라하고 있는 'Harvard Korean Studies Bibliography'에 의한 검색 결과, 한국 및 한국인의 고유한 심리 및 문화적 특성을 주제로 한 해외 연구들은 극히 소수였다(Harvard University Korea Institute, 1999). 또한 이 연구들은 어느 학문 영역 내 전반적인 한국/한국인의 특성을 다루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주제 자체가 상당히 협소한 경우들이 많았다.

1970년대 초반 Patterson과 Conroy(1972)는, 1950년대와 1960년대 동안 한국 전쟁 발발과 한국에 대한 중요한 관련서적이 출판되기는 하였으나, 한국의 역사 및 사회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Robinson(1981)은 한국의 역사, 문학, 언어, 교육 등에 대한 논문을 모은 'Studies on Korea in Transition'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 저서가 최근 20여 년 간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측면에서의 변화를 다루고 있으나 한국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체계적 시도가 부족하며, 저서에서 각각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통합하고 한국의 변화 및 정체성 형성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후 10여 년 후에 Palais(1995) 역시 한국의 역사를 중국의 부분으로 이해하는 시각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한국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가 여전히 충분치 않음을 드러내었다. 이렇듯 한국에 대한 연구들은 비단 정치적인 면 뿐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중국과의 관련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 Olmsted(1955)는 한국의 옛 이야기에서 표현되는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태도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러한 시각은 비교적 오래 지속되어 1980-90년대에 이르러서도 연구자들은 한국을 고유한 국가 및 집단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동북아시아의 문화권에 속해있는 한 나라로 보고 중국이나 그 외 아시아 국가들과 더불어 유교 문화 및 집단주의적 문화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Martin, 1990; Rindfuss & Hirschman, 1984). 또한 미국 내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재미 한국인들은 고유한 집단으로 파악되기 보다는, 동북아시아 이민자들의 부분으로 다루어졌다 (Kitano, 1981; Kibria, 2000). 물론, 일부 연구들은 한국이 처한 정치, 문화, 사회적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빠른 경제적 성장에 따른 변화나 교육열 등의 독특한 사회적 특징에 초점을 두기도 하였고 (Abelmann, 1997; Dore, 1977; Sorensen, 1994), 최근 들어서는 사회문화적 변인에서 한국인과 다른 국민을 비교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Bagozzi & Lee, 2002; Zhou, 2002), 그 수는 많지 않으며 주로 국내 연구자와의 협력 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인이 본 한국 및 한국인의 특성과 외국인이 본 한국 및 한국인의 특성은 연구 및 관련 저서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나, 연구방법 및 결과에 있어서는 그리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저자의 직관 및 관찰에 의거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경험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특성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다.

3. 국내 정체성 관련 연구들의 경향 및 주제에 따른 분류

3.1 정체성과 심리사회적 요인 간 관계

첫 번째 범주는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체성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대부분의 정체성 관련 연구들은 이 범주에 속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연구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족체계유형(박장희 · 정옥분, 200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정체성의 관계(김성일 · 김남희, 2001),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발달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현희순 · 김양순, 1999), 청소년의 성별과 성역할정체성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조아미, 2002), 청소년기 회심과 정체성 형성의 상호역동성에 관한 연구(이규민, 1992),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백문화 · 조병은, 1992), 청소년의 여가 활동 참가 유형 및 관련 변인들이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허정식, 1998),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과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조학래, 1996),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성 간의 관계(최성열, 2001),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분석(이현림 · 천미숙, 2003).

3.2 정체성 촉진 프로그램의 효과

정체성의 형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즉 전인교육 프로그램(허정철, 2004a; 2004b), 진로탐색 집단상담(이현림 · 이분택, 2003), MMTIC(심혜숙, 1995) 등의 심리유형검사를 이용한 프로그램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정체성의 형성을 촉진하는가 여부에 대한 연구들 또한 진행되어 왔다. 이 프로그램들은 주로 외국의 것들을 기초로 국내에서 재구성된 형식을 택하고 있다.

3.3 정체성의 발달 및 측정

해외에서는 다민족, 다인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특성 상, 민족 및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 편이며, 이 연구들은 민족 및 인종적 정체성이 어떻게 성립되는가, 혹은 다민족, 다인종 집단의 민족 및 인종적 정체성은 어떠한가를 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기존 연구들이 남성 위주의 정체성 형성을 다룬데서 나아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다루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단일 민족 및 인종이라는 특성 상, 특정 범주 정체성의 발달 보다는, 일반적인 정체성 발달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이 또한 정체성 발달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대부분이다(유혜경, 1983; 이정기, 2003). 한국청소년들의 연령 증가에 따른 정체성 발달경향을 다룬 연구가 있었으나(박아청, 1996, 2003), 측정도구가 자기보고식 정체성 척도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실제로 연구에서 측정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점을 남긴다.

또한 지체부자유 장애인 아동(서윤 · 류중길, 1998), 시설 아동(유안진 · 민하영 · 권기남, 2001) 등 일반적이지 않은 환경 및 조건에서의 정체감 형성, 재미 한국계 청소년처럼 양육자의 환경과 판이한 환경에서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 및 그 결과를 다룬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박아청, 1998).

3.4 정체성 비교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정체성 비교를 다룬 연구들이 이에 속한다. 한국청소년과 서독청소년의 자아정체성 발달경향 비교(서봉연, 1970) 등 인종 및 국가, 문화적 환경이 다른 집단들의 비교 이외에도, 산업체고교와 인문계고교 청소년(배제현, 1993a),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김경희 · 이희정, 2002), 비행청소년과 정상청소년(배제현, 1993b) 등 국내 청소년들 중 서로 다른 집단들의 정체성 비교 연구가 수행되었다.

3.4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정체성

해외 정체성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가 이주 및 이민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들이다. 앞서 인종 정체성 부분에서 언급했듯, 이는 주로 다민족이나 다인종으로 구성된 나라들에서 활발하다. 상대적으로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이나 국내로 이주해온 외국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비교적 드물게 수행되었다(김기현, 2004; 신정환, 2004).

또한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체성 등 새롭게 대두되는 정체성 개념에 대한 연구나(김종길 · 김문조, 2004), 한국 사회 내 세대 간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황상민 · 김도환, 2003)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4. 정체성의 측정

4.1 측정방법 분류

자아정체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측정방법에 따라 질문지법과 반구조화된 면접법으로 나뉜다.

질문지법은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자아정체성의 개념을 여러 관점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는데, 그 측정 내용에 따라 첫째, 발달적 측면에서 보는 것(각 단계의 발달적 위기를 어느 정도 해결했는가?), 둘째, 정체성의 감각에서 보는 것(자아개념의 통합성, 안정감, 명확성 및 그와 관련되는 감정), 셋째, 실존적 측면(의미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는 위기의 여부와 자신의 신념을 분명히 표현하거나 행동지침으로 삼는 관여의 여부)에서 보는 것이다. 질문지법은 대부분 연구대상자들이 자신에 대해 직접 응답하는 자기보고식(self-report) 방법을 택하고 있다.

반구조화된 면접법은 Marcia(1966)에 의해 최초로 실시되었는데, 그는 역할의 시도와 의사결정기간이라고 하는 위기의 유무와 삶의 중요한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의 유무를 각각 기준으로 하여 자아정체성 성취의 정도를 4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면접법은 국내에서도 변안 및 수정되어 실시되었다(배제현, 1984).

위의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듯, 자아정체성을 측정하는 방법들은 방법 자체의 차이보다는 오히려 자아정체성의 어떤 내용(영역)을 측정하는가에 따라 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2 질문지법 측정방법과 면접법 측정방법

질문지법은 그 측정 내용에 따라 다시 세 종류로 분류되는데, 첫째, 발달적 측면에서 보는 것, 둘째, 정체성의 측면에서 보는 것, 셋째, 실존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다.

첫째, Erikson에 의하면 정체성은 청소년기 이전의 각 발달단계의 발달적 위기를 잘 해결해낸 결실이며 따라서 발달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해 Rasmussen(1964)은 Erikson이 제안한 발달단계의 최초 6단계, 즉 유아기부터 성인 초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각 단계의 발달적 위기를 어느 정도 해결했는가에 의해 정체성을 판단하는 Ego Identity Scale을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Erikson이 주장한 발달 단계 별로 3개의 하위 영역을 설정하였다. 발달 단계 별 각 하위영역들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Rasmussen과 유사한 관점에서 작성된 질문지는 Constantinople(1969), Boyd와 Koskela(1970), Rosenthal, Gurney와 Moore(1981)의 것이 있다. Boyd와 Koskela는

Erikson의 8단계 심리사회적 발달위기 각각을 다시 신체, 사회, 인간관계, 가족, 자기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파악해 평정하게끔 하였다. Rosenthal 등(1981)은 Erikson의 발달단계 중 최초 6단계의 발달양상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진술식 질문지를 각 단계 별로 위기의 성공적 해결 6문항, 미해결 문항 6문항씩을 배정하여 총 72개 문항으로 된 Erikson 심리사회성 단계 검사(Erikson Psychosocial Stage Inventory)를 제작하였다.

표 2. Erikson의 발달 과업과 Rasmussen의 하위 영역

Erikson의 발달 과업과 위기	Rasmussen의 하위 영역
신뢰성 / 불신감	시간적 전망 타인과의 신뢰감 좋은 기회의 상실감
자율성 / 수치 및 의혹	자기확신 자율감 수치에 대한 두려움
솔선성 / 무능감 및 죄책감	가족이나 자기의 생육과정에 대한 혐오감 집단 내에서의 역할 실험 솔선성
근면성 / 열등감	성취에 대한 노력 경쟁의식의 과잉 일(과업)에 대한 집중력
정체성 / 역할 혼미	심리사회적 건전성 자아개념과 타인의식의 일치도 계획성, 목적의식 및 자기진로에 대한 이해
친밀성 / 고립감	친밀한 인간관계 소원한 사람이나 신념에 대한 거부감 인간관계에서의 정서적 고립감

둘째, Erikson은 정체성의 개념을 단순한 이론적 구성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현상학적인 주관적 의식경험을 중요시하였다. 정체성의 감각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활사적 연속성이나 자기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한 자기 확신이고 그 같은 자기가 타인에 의해서도 그렇게 인정되고 자기와 타인의 양쪽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고 믿는 심리적 안정감을 뜻한다. 즉 Erikson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내 몸이 편안한 느낌이다’,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알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표현되는 자아개념의 통합성, 안정감, 명확성 및 그에 관련되는 감정들을 자아정체성으로 보았다.

Dignan(1965)은 Erikson의 저서와 그때까지의 자아정체성 내용을 검토한 후, 자기감각, 독특성, 자기수용, 대인역할기대, 안정성, 목표지향성 및 대인관계의 7개 영역을 설정하였다. 그 내용

은 <표 3>과 같다.

표 3. Dignan의 자아정체성 측정 질문지 개요

하위 영역	정의	문항 예
자기감각	자신의 연속성과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안다	때때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
독특성	자기의 개성이나 타인과의 다른 점을 인식한다	대학에서 나는 주위 사람들에 휩쓸려 가는 기분이 든다
자기수용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자기와 함께 살아간다	내가 완전한 인간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런대로의 내가 좋다
대인역할기대	타인이 자신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 혼란없이 통합하고 확신을 갖는다	여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나에게서는 매우 지루하게 느껴진다
안정성	자신에 대해 느끼는 방법이 별로 변화되지 않고 안정되어 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여러 사람에 맞도록 행동하는 편이다
목표지향성	장래의 자아상을 파악하고 자기가 목표하고 지향하려는 방향을 안다	나에게는 내 이상을 실현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다
대인관계	타인과 친밀하고 또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한다	나는 여러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 즐겁다

셋째, 또 다른 시각에서는 정체성의 형성은 단순히 생물학적 또는 사회학적인 적응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간존재에 대한 내재적인 기본적 질문을 통해 의미있는 자기 세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즉 정체성의 개념 중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있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자기를 정립하고 규정하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Marcia(1966)는 기존의 정체성 연구는 정체성의 성취에 수반되어 발견되는 제반 특징의 조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정체성의 성취 정도를 판별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기준으로서 의미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는 위기의 여부와 자신의 신념을 분명히 표현하거나 행동 지침으로 삼는 관여의 여부를 제시하였다. Simmons(1970)와 Adams(1979)는 이러한 관점을 질문지 방법으로 개발하였다.

국내에서는 주로 위의 질문지들이 번안되어 사용되었으나 한국인에게 맞는 정체성 측정 질문지를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김형태(1989)는 정체성을 발달단계형 자아정체성, 구성요인형 자아정체성, 지위분류형 자아정체성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발달단계형 자아정체성은 Erikson의 8단계 발달론 중 최초 5단계

까지의 발달과업인 신뢰성, 자율성, 솔선성, 근면성, 정체성으로 구성되었다. 구성요인형 자아정체성은 주관적으로 의식경험하는 정체성 측면으로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존재의 독특성, 대인관계 역할인지, 자기수용, 자기주장이라는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지위분류형 자아정체성은 Marcia의 이론을 바탕으로 위기경험 유무와 자아관여 유무를 양측으로 하여 혼미, 폐쇄, 유예, 성취의 4가지로 자아정체성 발달수준을 구분한 것이다. 엄밀히 말해, 이 시도는 새롭게 정체성 측정 질문을 개발하였다기 보다는, 기존의 정체성 측정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포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박아청(2003)은 정체성을 그 자체가 복잡한 자아 의식이며 자기 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을 지속하고 고양시켜 나가는 자질로 파악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 지각하며 자기 일관성 및 자기 통합성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정체성이 강한 사람으로 보았다. 그는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정체감 유예, 정체감 혼미 등 8개의 하위 차원으로 ‘한국형 자아정체성 검사’를 구성하였다.

질문지법을 사용한 정체성 측정방법은 재고자 하는 특성을 정량화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비교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Rasmussen(1964)이나 Dignan(1965)의 척도는 문항 선택 시에 그 내용적 일치성의 검토가 주된 것이며 통계적인 문항 분석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둘째, 정체성을 여러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으나 그 요인타당성에 관한 분석이 거의 없는 편이다. 자기 평가나 적응 등 관련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바람직성 및 사회적 기대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넷째, 질문지에 의해 정체성이 측정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Marcia(1964)는 면접법, 정확하게는 반구조화된 면접법으로 정체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는 이전까지의 연구는 정체성 성취 유무에 수반되어 발생한 특징을 조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심리사회적인 두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하나는 의미있는 몇 가지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결단을 내리려고 고민한 위기(crisis)의 시기가 있었는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신념을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는 관여(commitment)의 정도이다.

Marcia는 두 가지의 변인에서 전체적인 정체성 지위를 파악하기 위한 면접법을 고안하였는데, 그 절차는 정체성 성취의 계기가 된다고 본 직업과 이데올로기(종교 및 정치)에 대한 피면접자의 반응을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각 정체성 지위의 적응적 측면과 병리적 측면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Marcia의 면접법이 갖는 장점은 정체성의 성취를 검토하기 위해 Erikson이 제시한 정체성 대

정체가(역할) 혼미라는 양극적 특성을 보다 넓게 두 차원에서 규정한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 기대에 의한 편향이 질문지법에 비해 줄어들며, 평정자 간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및 방법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 첫째, 유목화된 각 집단의 특징을 검토해보면 발달의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성취 집단, 조기완료 집단, 확산 집단)과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유예 집단)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이론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둘째, 관여의 대상으로서 거론된 영역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보증이 전혀 없다. 셋째, 영역에 따라 위기가 일어나게 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넷째, 유목화의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의 탐색도, 자아관여의 정도, 관여의 적시성 등 연속성을 가진 변인의 측정을 배제해버릴 수 있다. 따라서 과학의 진보에 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되는 변인의 추출이나 그들 변인상호간의 관계를 분별할 수 없게 한다.

표 4. 정체성 지위의 양면적 특성

지위	적응적 측면	병리적 측면
자아정체성 성취	대부분의 사람이 적응적이고, 자아강도, 자기결정력, 자기지향성이 높다	자기의 직업적 이데올로기적인 관여를 너무 빨리 고정함에 따라 자기의 기본적인 적응성을 제한하는 조속한 정체성 성취 현상이 있다
자아정체성 유예	민감하고 매우 도덕적이며 유연성이 있다	불안이 높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지나치게) 확신하며 동요되기 쉽다
자아정체성 폐쇄	확고하고 잘 관여되어 있으며 협동적이다	유연성이 없고 경직되어 있다, 독선, 독단적이며 규칙과 관습에 동조적이며 기준형에 많이 영향받는다
자아정체성 혼미	염려하는 일이 없고 즐거우며 매력적이다, 독립적이고 독보적이다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다, 정신병리적이고 분열적이다

4.3 자아방어기제의 측정

4.3.1 정체성과 자아방어기제

Freud는 저서인 ‘Neuropsychoses of Defense’ 에서 처음으로 방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받아들이 수 없는 사고나 감정들을 막아내기 위해, 무의식적 과정을 통해 이들 사고나 감정들을 덜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하였다. 이는 Freud가 마음 내의 갈등에 대해 가장 초기에 언급한 것 중 하나로, 마음의 한 부분이 지닌 소망과 감정을 다른 한 부분이 반대하고 의식에 머

무르지 못하게 한다고 본 것이다(김정옥, 2003).

이후 Anna Freud는 ‘자아와 방어기제’에서 방어기제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먼저, 억압, 투항, 반동형성, 전위, 투사, 격리, 취소, 부인, 자기에 대한 공격, 반전을 제시하였고, 이후 공격자에 대한 동일시, 이타적 양도를 추가하였다.

Freud 이후 초기 방어 이론에서는 방어가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추동이나 소망을 의식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방어의 심리내적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에 대해 보다 초점을 둔 것이다. 반면, 후기 방어 이론에서는 방어를 주요 타자와의 친밀한 관계 맥락에서 발생하는 관계 및 인지적 패턴으로 보았다. 방어는 불안을 일으키는 대상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해로운 외적인 영향이나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접근에서 볼 때, 방어는 개인의 자존감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현대 정신분석치료자들은 이러한 초기 및 후기 이론들을 통합하고 있다. 치료자들은 방어의 내적 기제와 대인 간 요인들 간의 변증법적 긴장을 봄으로써 두 이론을 통합한다. 치료자들은 여러 가지 대인관계 상황에서 나타나는 방어의 지속적인 측면을 보는데 있어서 초기 이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기 이론적 접근은 각 이자관계의 독특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방어 자체가 비정상적이거나 병리적인 것은 아니며, 적응적인 기능을 지니기도 한다. 다시 말해, 방어란 불안을 유발하는 추동이나 불쾌한 정동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상적인 조작이다. 방어는 주로 심리적인 갈등에서 비롯되는데, 정상적인 적응과 성격 발달의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병리적인 증상이나 성격 특성과 관련될 수도 있다. 방어는 성격 발달, 증상 형성, 심리적 생활의 모든 측면들에서 역할을 하는데, 방어가 경직되고 지속적으로 이용될 때 병리적이라고 본다. Kernberg는 pre-oedipal과 oedipal pathology와 관련하여 방어적 조직수준을 크게 둘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신경증과 관련되며 다른 하나는 경계선 성격 및 정신병과 관련된다. 후자와 같은 하위 수준의 성격 조직에서는 분리(splitting)가 방어의 기본이 되며, 이는 다시 하위 수준의 부인(denial), 미숙한 이상화(idealization), 미숙한 평가절하(devaluation) 및 투사적 동일시(projective identification)와의 연결을 통해 증폭되어진다. 반면, 이보다 고차적인 수준의 성격 조직에서는, 주된 방어으로써 분리 대신 억압이 이용되며, 이는 다시 이지화나 합리화, 취소, 고차 수준의 부인 및 투사와 연결되어 나타나게 된다(임혜진 · 신동균 · 이민수, 2001).

Erikson이 자아 정체성과 자아방어기제를 직접적으로 연결짓지는 않았으나, 앞서 언급했듯, Hartmann과 다른 자아 심리학자들은 자아의 구조화 및 통합적 기능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측면에서 Erikson이 제시했던 자아 정체성 개념은 자아의 구조화 및 통합적 기능과 연결된 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3.2 자아방어기제의 측정방법

방어기제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기보고식 검사, 투사법 검사, 임상적 면접법이 있다 (Conte & Plutchik, 1995).

첫째, 자기보고식 검사의 예로는 방어기제검사(Defense Mechanism Inventory), 방어유형 질문지(Defense Style Questionnaire)가 있다.

둘째, 투사법 검사들은 대상 관계의 맥락에서 방어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로 사용되었으며 Rorschach 검사를 비롯, TAT나 SCT 등의 투사법 검사들이 사용되었다.

특히, Lerner는 특히 경계선성격장애의 특정 방어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Lerner Defense Scale을 개발하였다. Rorschach 검사의 반응에서 전체 인간 모습을 담고 있는 인간차원반응(Humanness)이 채점의 기본 단위인데, 예외적으로 투사적 동일시(projective identification) 중 일부는 인간부분반응과 관련된다. 척도는 분리(splitting), 평가절하(devaluation), 이상화(idealization), 투사적 동일시(projective identification), 그리고 부인(denial)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방어기제의 구분 뿐 아니라 그 방어기제 내 상위 대 하위의 서열 채점을 한다.

Lerner Defense Scale의 채점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임혜진, 신동균, 이민수, 2001).

1. 채점의 기본 단위는 정지 상태이거나 운동 상태에 있는 전체 인간 반응이다. 분리에서는 두 개의 반응이 한 단위가 될 수 있으며, 투사적 동일시에서는 인간 부분 반응이 채점 대상이 될 수 있다.
2. 모든 반응을 Mayman(1970)의 형태 수준 방식에 따라 채점 한 후, 본 채점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3. 평가절하와 이상화, 부인에서는 왜곡과 묘사의 정도에 따른 연속선을 가정하고 상위 대 하위의 서열적 채점이 이루어진다.
4. 모든 반응은 하나 이상의 채점에 해당될 수 있다.

각 영역의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분리

- 1) 한 방향의 정서 차원에서 묘사된 반응이 끝이어 그 반대 방향의 정서 차원으로 묘사되는 경우. 예) “한 남자, 한 여자. 남자는 사악한 모습이고 여자에게 소리치고 있는데... 여자는 오히려 천사같이, 거기에 서서 당하고 있다”
- 2) 전체 인간 반응으로 묘사되나, 분명히 구분되는 각 부분이 정반대로 묘사된다.
- 3) 한 반응에 두 개의 형태를 본 것으로, 그 형태는 서로 반대되게 묘사된다.
- 4) 암묵적으로 이상화되어있는 형태가 추가적인 특징을 덧붙임으로써 변질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예) “머리가 없는 천사”

2. 평가절하

이 기제는 5점의 연속선상에서 채점된다. 연속선의 기저에는 3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 차원은 인간차원이 유지되는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어진 자극을 웨이터나 광대로 지각하는 것은, 괴물이나 신화적 대상과 같은 일반적인 인간으로부터 더 왜곡된 형태로 지각하는 것보다 점수가 높게 채점된다. 시간적-공간적 거리의 여부는 두 번째 차원을 결정한다. 현재의 그리고 지역적으로 가깝게 동시대의 인물을 보는 것은 과거나 미래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지각하는 것보다 점수가 높다. 마지막 차원은 정서적인 묘사에 있어서 담겨있는 평가절하의 강도와 관련되어 있다. 더 원시적이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식으로 기술된 그림보다는, 부정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만 좀 더 문명화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묘사된 것이 더 점수가 높다.

- 1) 1점 : 인간반응 차원이며, 시간적/공간적 거리감이 없고 묘사에 부정적인 경향을 띠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용어로 기술된다. 예)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
- 2) 2점 : 인간반응 차원이며, 시간적/공간적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부정적이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용어로 기술된다. 예) “사악하게 보이는 남자 모습”
- 3) 인간반응 차원이나, 인간 형태의 왜곡이 내포되어 있다. 시간적/공간적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용어로 기술된다. 예) 어릿광대, 야만인, 마녀, 악마
- 4) 인간반응 차원이나, 왜곡된 인간 형태이다. 시간적/공간적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묘사가 부정적이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용어로 기술된다.
- 5) 인간반응 차원이 상실되며, 시간적/공간적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용어로 기술된다. 인형, 마네킹, 로봇, 인간의 특징을 일부 가지고 있는 존재물, 일부는 인간이고 일부는 동물인 반응, 그리고 동물의 특징이 하나 이상 있는 인간반

응들이 포함된다. 예) “웃 입은 마네킹인데 머리가 없다” , “가슴이 있는 여자인데 하이힐을 신었고 입은 새의 부리이다”

3. 이상화

- 1) 1점 : 인간반응 차원이며, 시간적/공간적 거리감이 없고 긍정적으로 묘사된다. 예) “울타리 너머로 쳐다보고 있는 두 명의 좋은 사람들”
- 2) 2점 : 인간반응 차원이며, 시간적/공간적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긍정적인 묘사가 1점의 경우보다 더 심하고 과장되어 있다.
- 3) 인간반응 차원이나, 인간 형태의 왜곡이 내포되어 있다. 시간적/공간적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 그 정도는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예) 민중 지도자, 장관, 유명인 등 유명하고 숭배받고 강한 대상들
- 4) 인간반응 차원이나 왜곡된 인간 형태이다. 시간적/공간적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긍정적인 묘사의 정도가 3점의 경우보다 더 심하다.
- 5) 인간반응 차원이 상실되며, 왜곡은 증대된 정체성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시간적/공간적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독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용어로 기술된다. 예) 유명한 조각상, 거인, 슈퍼맨, 초능력을 가진 우주인, 천사, 우상

4. 투사적 동일시

외부 대상의 현실적인 특징을 무시한 채, 자아의 부분들을 외현화시키거나, 자아와 비자아 간의 경계가 분명치 않으며, 타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는 반응들이다. 다음 두 가지 반응 범주가 해당된다. 첫째, 전체 인간 형태 중 그 형태질이 FW-나 F-(Mayman 참고)인 것으로, 반점의 실제 특징과 상관없이 상상이나 정서에 의해 대체되는 식의 연상적 수식으로 이루어진 반응이 해당된다. 예) “거대한 남자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 사람의 손은 나를 칠 것처럼 위로 올라가 있다 ” 둘째, 인간 반응이나 부분 인간 반응으로, 혼하지 않은 영역에서 보거나 반응 결정인이 FC(Mayman 참고)인 반응이 해당된다. 예) “못생긴 얼굴 (Rorschach 4번 카드에서 안쪽 부분)” , “다친 사람(6번 카드, 위쪽의 중앙 부분)”

5. 부인

- 1) 1점 : 비교적 고차 수준의 부인을 말한다. 부정, 이지화, 극소화, 취소의 경우가 해당된다.
- 2) 2점 : 중간 수준의 부인을 말한다. 반응 중에 근본적인 모순이 포함되어 있어, 지각한 대상

이 가질 수 없는 속성으로 그 대상을 묘사한다. 예) “싸우고 있는 수녀 ‘

- 3) 가장 하위 수준의 부인을 말한다. 현실감이 상실되고, 반점의 있는 부분을 보지 못하거나 없는 부분을 봄으로써, 수용할 수 없는 반응이 된다. 또한 지각이 현실에서 양립할 수 없는 식으로 묘사될 경우 이에 해당된다. Mayman의 Fs 반응에 해당된다. 예) “두 사람인데, 상반신은 여자로 하반신은 남자다... 각각 가슴과 성기를 가지고 있다” , “자기의 큰 꼬리위에 앉아있는 사람”

셋째, 임상적 면접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방법이다.

이 중 방어기제 평정척도(Defense Mechanism Rating Scale)는 피면접자들이 삶의 위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로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한 피면접자들의 대답 내용을 바탕으로 피면접자가 주로 사용한 주요 방어기제와 보조 방어기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방어기제 평정척도는 27개의 방어를 평가할 수 있는데, 27개의 방어기제는 유사한 기능적 속성 및 경험적 관계에 근거해서 7개의 방어 수준으로 나누어진다. 7개의 방어 수준은 전반적인 방어 성숙도의 위계상에 배열되며 다음과 같다.

제 1수준 ‘행동형(action)’ : 행동화, 수동공격성, 건강염려증(도움거부불평)

제 2수준 ‘큰 심상-왜곡(major image-distorting)’ : 분열, 투사적 동일시

제 3수준 ‘부인형(disavowal)’ : 부인, 투사, 합리화 및 환상

제 4수준 ‘작은 심상-왜곡(minor image-distorting)’ : 전지전능, 이상화 및 평가절하

제 5수준 ‘신경증형(other neurotic)’ : 억압, 해리, 반동형성, 전위

제 6수준 ‘강박형(obsessional)’ : 격리, 주지화, 취소

제 7수준 ‘적응형(high adaptive)’ : 친화, 이타주의, 예기, 유머, 자기주장, 자기관찰, 승화 및 억제

이외에 방어를 평가하는 또 다른 투사법 방법으로 Defense Mechanism Test(DMT)가 있다. 이 검사는 TAT와 같은 그림을 순간노출기를 통해 역치하에서부터 피검자가 정확히 지각할 때까지 시간을 증가시켜가며 제시한다. 각 그림이 제시된 후 피검자들은 그들의 지각을 기술하고 이후 상이한 노출 시간에 나타나는 지각 왜곡에 근거해서 10개의 방어를 채점한다. DMT는 방어의 지각-생성 검사라고 불리는데, 방어가 초기 외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각에서의 왜곡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방어기제를 미숙한 방어에서부터 성숙한 방어 순서로 체계화 해 성숙도 위계를 다루고자 하는

시도가 초기부터 꾸준히 있어왔고, Vaillant는 그 대표적 연구자이다. Vaillant는 방어의 성숙도 체계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연구들 중 하나로, Grant 연구로 명명되었던 한 연구에서, 9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30년 간에 걸쳐 자아 방어기제와 성인기의 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전반적인 방어 성숙도는 객관적인 정신병리를 측정하는 척도와 $-.35$ 의 상관을 보였고, 외부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적응과 $.65$ 의 상관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미성숙한 방어는 적응과 부적으로 상관되었으며, 정신병리와 정적으로 상관되었고, 성숙한 방어는 적응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한성열, 2005; Vaillant, 1976).

5. 종합적 논의 및 연구 방향

5.1 기존 정체성 연구들의 한계

정체성을 주제로 다룬 기존 연구들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적인 정체성 개념의 사용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아 정체성, 개인적 정체성, 집단 정체성 중 개인적 정체성의 일부를 다루는 정체성 지위 이론에 바탕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정체성은 정체성의 의식적인 면의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보다 심층적인 자아 정체성이나 개인이 속한 사회적 집단과의 관계인 집단 정체성 부분에 대한 고찰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집단 정체성을 다루는 연구 및 조사에서도 개인이 집단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정도와 개인이 그 집단 구성원으로서 지니는 특성을 함께 평가하는 연구들은 거의 없었다.

둘째, 이러한 한정적 정체성 개념 사용으로 인해, 측정 방식의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 Marcia의 경우 면접법을 도입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정체성 연구에서 정체성은 연구대상자들에 의한 자기보고식 방법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면접법을 도입한 연구들 또한 없는 것은 아니나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협소함과 동시에 면접법을 근간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체성 지위만을 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많은 연구가 문헌연구 및 관찰연구에 제한되어 있다. 물론 문화인류학이나 사회학적 연구에서는 관찰이 유용하고 주요한 연구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나 이는 자칫 연구자의 직관에 의거한 주관적 견해를 낳을 수 있다.

넷째,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들은 성격의 현상적 특성 탐구 및 표면적 특성 탐구에 치중되어 있다. 왜 그러한 성격 또는 특징이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원인 및 근원 탐구보다는, 현상적 및 외현적으로 보이는 특징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5.2 정체성 연구의 필요성

위에서 열거한 현재 정체성 연구들의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한국인의 정체성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포괄적인 정체성 개념의 도입이다. 앞서 언급했듯, 정체성은 단일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 수준의 다른 특성을 지닌 정체성의 통합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정체성들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나 상호 충족 및 보완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자아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 간 긍정적 상호작

용은 개개인의 자아의 통합력을 강하게 하고 건강한 집단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합적인 정체성 개념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더불어 집단 정체성의 경우, 개인이 집단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정도와 개인이 그 집단 구성원으로서 지니는 특성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문헌 연구 및 관찰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의 개념을 사전에 명확히 해 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자아 정체성의 경우 심층적이고 의식적인 보고로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자아 정체성을 측정하는 도구는 개인의 내면 세계를 알아 볼 수 있는 비 자기보고식 도구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국제한국학회(1998). 한국문화와 한국인. 서울: 사계절.
- 권석만(1997). 임상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연구.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연구(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회 편). 서울: 성원사.
- 김경희, 이희정(2002).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4), 1-23.
- 김광일(1972). 한국인의 신체화 경향에 관한 논고. 최신의학, 15, 1440-1443.
- 김기현(2004). 멕시코 한인 후손들의 정체성 연구: 현황과 정책대안 - 유카탄 지역-. 스페인어 문학, 31, 327-345.
- 김명정, 김광일(1984). 신체화장애의 임상적 연구. 정신건강연구, 2, 137-158.
- 김병조(2002). 세계화 시대의 국민정체성 비교연구. 정신문화연구, 25(2), 31-53.
- 김성일, 김남희(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발달, 14(1), 75-89.
- 김의철, 박영신(1998). 한국인의 성공의식과 귀인양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교육심리연구, 12(2), 51-84.
- 김의철, 박영신(2004).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103-137.
- 김정옥(2003). 방어기제성숙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47-763.
- 김종길, 김문조(2004). 아바타와 청소년의 사이버 정체성 발달. 청소년학연구, 11(2), 185-215.
- 김창대(1994). 한국인의 문제해결과정: 문화적 요소의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 96-107.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경태(2000). 한국인의 심리에 관한 보고서. 프레드 엘퍼드 저. 서울: 그린비.
- 민하영, 유안진(2003). 임신 및 출산 풍습에 관한 비교문화연구: 한국, 홍콩, 및 미국의 어머니-할머니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4), 157-168.
- 민하영, 유안진(2004). 한국의 출생의례와 아기행사 풍속의 문화간, 세대간 비교 연구: 홍콩 및 미국의 할머니 세대와 어머니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2(4), 55-68.
- 박아청(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 II.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박아청(1996). 한국청소년의 정체감 발달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2),

- 68-78.
- 박아청(1998). 재미한국계 미국인 청소년의 성격과 정체의식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8(1), 159-170.
- 박아청(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교육심리연구, 13(4), 114-142.
- 박아청(2003). 교육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자기의 발달. 교육심리연구, 17(2), 45-70.
- 박아청(2003). 정체감 연구의 전망과 과제. 서울: 학지사.
- 박아청(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7(3), 373-392.
- 박아청(2004). 청년기 자아정체감 발달단계의 특성분석. 교육심리연구, 18(1), 301-312.
- 박영신, 김의철(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 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 박장희, 정옥분(2002). 복합순환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과 청년기 자아정체감발달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49-63.
-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2004). 현대 한국사회의 일상문화코드. 서울: 한울아카데미
- 박제순, 이근후(1981). 여성 우울증환자의 신체증상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0, 382-391.
- 배제현(1984). 자아-아이덴티티와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제현(1993). 비행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비교. 재활심리연구, 1(1), 71-83.
- 배제현(1993). 산업체고교와 인문계고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비교. 청소년학연구, 1(1), 77-91.
- 백문화, 조병은(1992).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0(2), 219-236.
- 백지숙(1999). 후기 청소년의 개체화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2), 269-277.
-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일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윤, 류중길(1998). 장애인수용시설 지체부자유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5(3), 91-114.
- 성한기(2001).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3), 33-48.
- 신복룡(1999). 한말 외국인 기록. 험버트 저. 서울: 집문당
- 신재영(1996). An ethnographic study on the ethnic identity of Koran-American adolescent. 교육학 연구, 34(5), 429-444.
- 신정환(2004). 쿠바 한인 후손들의 정체성 회복방안 연구. 스페인어문학, 33, 439-452.
- 심혜숙(1995). MMTIC을 활용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학업성취지도 프로그램(SAM)의

- 개발. 한국심리유형학회지, 2(1), 49-65.
- 유가효(1999). 첫부모됨과 영아기 육아에서의 문화간, 세대간 연속성과 비연속성: 한국, 중국, 미국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2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밀레니엄 시대의 아동환경 변화와 아동학의 기여, 15-42.
- 유안진(1987). 한국인의 전통적 육아방식 연구. 1987년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3-40.
- 유안진, 민하영, 권기남(2001).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심리사회적 적응: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3), 135-149.
- 유혜경(198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 Erikson의 정체이론 확장 및 교육에의 시사점. 교육학연구, 21(3), 49-62.
- 육성필(1994). 성격의 5요인 이론에 기초한 척도의 구성을 위한 예비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태림(1970). 한국인. 서울: 현암사.
- 은기수(2004). 한국인의 가족가치 -5개국 비교연구-. 정신문화연구, 27(3), 137-182.
- 이규민(1992). 청소년기 회심과 자아정체성 형성의 상호역동성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 23, 117-148.
- 이명진(2005). 한국2030신세대의 의식과 사회정체성.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이소은(1999). 한국의 문화와 아동발달.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교육생활과학논총, 2, 53-64.
- 이수원(1995). 한국인의 인정: 그 심리학적 함의(I). 동양사상과 심리학(임능빈 편). 서울: 성원사.
- 이용승(2004). 대상관계 이론의 역사적 개관. 한국상담심리학회 2004년 동계학술연수 자료집.
- 이정기(2003). "Centering" 으로서의 상담: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한 모델. 기독교상담학회지, 6, 239-271.
- 이종한(2005). 우리에게 대한 비교문화심리학적 이해: 집단주의-개인주의 관점. 제 2회 세계한국학대회 자료집, 958-971.
- 이현림, 이분택(2003).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여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0(2), 155-169.
- 이현림, 천미숙(200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10(4), 511-541.

- 임능빈(1995). 성격이론의 일연구 - 유교를 중심으로. 동양사상과 성리학. 서울: 성원사.
- 임혜진, 신동균, 이민수(2001). Rorschach 검사에 나타난 경계선 인격장애집단의 방어기제. 정신병리학회지, 10(1), 35-43.
- 정영숙, 박영애, 이경희(1997).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의식과 실태: 한국인의 양육문화. 한국생활과학회 제 15차 총회 및 세미나, 7-25.
- 정옥분, 김광웅, 김동춘, 유가효, 윤종희, 정현희, 최경순, 최영희(1996). 전통 가족에서의 자녀양육 및 사회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 46-66.
- 조공호(1996).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 비교문화적 고찰.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5, 27-86.
- 조공호(1997). 한국인의 주관적 안녕과 정서의 조절.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6, 29-283.
- 조공호(2000). 문화유형과 동기의 차이: 한국인의 동기 이해를 위한 시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83-122.
- 조공호(2003). 문화성향과 통제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2), 85-106.
- 조공호(2004). 동아시아 집단주의의 유학사상적 배경. 사회과학연구, 12(1), 6-42.
- 조아미(2002). 청소년의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91-108.
- 조학래(1996).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4, 328.
- 중앙일보(2005). 한국인 그들은 누구인가? 중앙일보, 2005년 10월 13일자.
- 차재호(1994). 지난 백년간의 한국인의 가치, 신념, 태도 및 행동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40-58.
- 채정민(2004).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1), 41-63.
- 채정민(2005).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갈등 중재자의 특성. 제 2회 세계한국학대회 자료집, 935-948.
- 최상진(1993).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자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2), 24-33.
- 최상진, 유승엽(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137-157.
- 최성열(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아동교육, 10(1),

119-132.

최재석(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현음사.

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회(1997).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서울: 성원사.

한성열(1995). 성공적 삶의 심리학. 조지 베일런트 저. 서울: 나남출판

허정식(1998).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가유형 및 관련변인들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9(1), 133-144.

허정철(2004a). 전인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아정체감 형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1(3), 241-269.

허정철(2004b).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전인교육 프로그램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20, 33-62.

현희순, 김양순(200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1), 249-262.

황상민, 김도환(2004).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세대의 심리적 정체성: '세대 차이' 연구를 위한 심리학적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31-47.

Abelmann, N.(1997). Women's class mobility and identities in South Korea: A gendered, transitional narrative approach.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6(2), 398-420.

Adams, G. R., & Shea, J. E.(1979). Toward the development of an objective assessment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 81-89.

Baudry, F.(1984). Character : a concept in search of an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32, 455-477.

Berzonsky, M. D., & Adams, R. A.(1999). Reevaluating the identity status paradigm: Still useful after 35years. *Developmental Review*, 19, 557-590.

Borowski, E. J.(1976). Identity and personal identity. *Mind*, 85(340), 481-502.

Boyd, R. D., & Koskela, R. N.(1970). A test of Erikson's theory of ego-stage development by means of a self-report instrument.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38, 1-14.

Cerulo, K. A.(1997). Identity construction: New issue, new direc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 385-409.

Constantinople, A.(1969). An Eriksonian measure of personality development in college stud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 357-372.

- Conte, H. R. & Plutchik, R.(1995). *Ego Defenses*. NY: John Willey & Sons.
- Cramer, P.(2000).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4(1), 42–72.
- Dignan, M. H.(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476–483.
- Dore, R. P.(1977). South Korean development in wider perspective. *Pacific Affairs*, 50(2), 189–207.
- Elbedour, S., Bastien, D. T., & Center, B. A.(1997). Identity formation in the shadow of conflict: Projection drawings by Palestinian and Israel Arab children from the West bank Gaza. *Journal of Peace Research*, 34(2), 217–231.
- Ellemers, N., Spears, R., & Doosje, B.(2002). Self and Social ident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161–186.
- Erikson, E. H.(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1), 56–121.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Fast, I.(1970). A function of action in the early development of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51, 471–478.
- Frale, D. E.(1997). Gender, racial, ethnic, sexual and class ident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139–162.
- Harvard University Korea Institute(1999). The Harvard Korean Studies Bibliography. (CD)
- Howard, J. A.(2000). Social psychology of identit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367–393.
- Kibria, N.(2000). Race, ethnic options, and ethnic binds: Identity negotiations of second-generation Chinese and Korean Americans. *Sociological Perspectives*, 43(1), 77–95.
- Kim, K. I., Li, D., Jiang, Z., Cui, Z., Lin, L., Kang, J. J., Park, K. K., Chung, E. K., & Kim, C. K.(1993). Schizophrenic delusions among Koreans, Korean–Chinese and Chinese: A transcultural stud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39, 190–199.

- Kitano, H. H.(1981). Asia-Americans: The Chinese, Japanese, Koreans, Pilipinos, and Southeast Asian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54, 125–138.
- Lachmann, F. M.(2004). Identity and self, *International Forum of Psychoanalysis*, 13, 246–253.
- Levita, D. J.(1966). On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7, 299–305.
- Lomas, P.(1961). Family role and identity for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2, 371–380.
- Marcia, J. E.(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 Martin, L. G.(1990). Changing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 in East Asia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10, 102–114.
- Olmsted, D. L.(1955). Korean folklore and attitudes toward China.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68(267), 51–55.
- Palais, J. B.(1995). A search for Koran uniqueness.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55(2), 409–425.
- Patterson. W. & Conroy, H.(1972). Recent studies of Korea. *Pacific Affairs*, 45(3), 409–412.
- Phinney, J.(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 499–514.
- Rasmussen, J. E.(1964). The relationship of ego identity to psychosocial effectiveness. *Psychological Report*, 15, 815–825.
- Rindfuss, R. R., & Hirschman, C.(1984). The timing of family formation: Structural and societal factors in the Asian contex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1), 205–214.
- Robinson, M.(1981). Studies on Korea in transitio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40(2), 399–400.
- Rosenthal, D. A., Gurney, R. M., & Moore, S. M.(1981). From trust to intimacy: A new inventory for examining Erikson's stages of psycho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 Youth and Adolescence*, 10, 525–537.
- Schaffer, R.(1973). Concept of self and identity and the experience of separation–individuation in adolescence, *Psychoanalytic Quarterly*, 4(1), 42–49.
- Schwartz, S. J.(2005). A new identity for identity researc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0(3), 293–308.
- Simmons, D. D.(1970). Development of an objective measure of identity achievement status. *Journal of Projective Techniques and Personality Assessment*, 34, 241–244.
- Sorensen, C. W.(1994). Success and education in South Korea.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38(1), 10–35.
- Tabachnick, N.(1965). Three psychoanalytic views of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6, 467–473.
- Tabachnick, N.(1967). Self–realization and social definition two aspects of identity for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8, 68–75.
- Vaillant, G. E.(1976). Natural history of male psychological health: V. The relation of choice of ego mechanis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3, 535–545.
- Wallerstein, R. S.(1998). Erikson's concept of ego identity reconsidered,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6, 229–247.
- Waterman, A. S.(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41–358.

부록 : 정체성 관련 참고자료

1. 정체성 전반

논문명 / 저서명	저자 / 출판연도	학회지명 / 출판사명
Identity development	Kroger, J. (2000)	Sage Publications
Identity and emotion	Bosma, H. A. (2001)	Cambridge University Press
Immigration and identity	Akhtar, S. (1999)	Jason & Aronsons
Adolescent portraits	Garrod, A. C. (2005)	Pearson Education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Leary, M. R. (2003)	The Guilford Pres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Marcia, J. E. (1966)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Reevaluating the identity status paradigm: Still useful after 35years	Berzonsky, M. D. (1999)	Developmental Review, 19, 557-590.
Development of identity: Gender makes a difference	Cramer, P. (2000)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4(1), 42-7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Waterman, V. S. (1982)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41-358.
Identity youth and crisis	Erikson, E. H. (1968)	W.W. Norton & Company
정체감 연구의 전망과 과제	박아청 (2003)	학지사
아이덴티티의 탐색 II	박아청 (1995)	중앙적성출판사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일연구	서봉연 (1975)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정체성과 정신분석학

논문명 / 저서명	저자 / 출판연도	학회지명 / 출판사명
Character : a concept in search of an identity	Baundry, F. (1984)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32, 455-477.
Erikson's concept of ego identity reconsidered	Wallerstein, R. S. (1998)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6, 229-247.
Concept of self and identity and the experience of separation-individuation in adolescence	Schaffer, R. (1973)	Psychoanalytic Quarterly, 4(1), 42-49.
The problems of identity	Erikson, E, H. (1956)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1), 56-121.
Family role and identity formation	Lomas, P. (1961)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2, 371-380.
Three psychoanalytic views of identity	Tabachnick, N. (1965)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6, 467-472.
On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identity	Levita, D. J. (1966)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7, 299-305.
Self-realization and social definition two aspects of identity formation	Tabachnick, N. (1967)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8, 68-75.
A function of action in the early development of identity	Fast, I. (1970)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51, 471-478.

Identity and self	Lachmann, P. (2004)	International Forum of Psychoanalysis, 13, 246-253.
대상관계 이론의 역사적 개관	이용승 (2004)	한국상담심리학회 2004년 동 계학술연수 자료집

3. 집단 정체성

논문명 / 저서명	저자 / 출판연도	학회지명 / 출판사명
Identity Construction	Cerulo, K. A. (1997)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3, 385-409.
Gender, racial, ethnic, sexual and class identities	Frable, D. E. (1997)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139-162.
Social psychologies of identities	Howard, J. A. (2000)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367-393.
Self and Social identity.	Ellemers, N., Spears, R. & Doosje, B. (2002)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161-186.
A new identity for identity research	Schwartz, S. J. (2005)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0(3), 293-308.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hinney, J. (1990)	<i>Psychological Bulletin</i> , 108, 499-514.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 측정방법 연구: 사회정체성에 관한 대학생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이명진 (2004)	한국조사연구학회, 5(1), 51-78.
한국의 가족 관련 사회정체성 연구: 감정조절이론(ACT)의 수정 적용을 중심으로	최셋별, 이명진, 김재운 (2003)	한국사회학회, 37(5), 1-31.
한국2030신세대의 의식과 사회정체성	이명진 (2005)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세대의 심리적 정체성: '세대 차이' 연구를 위한 심리학적 모델	황상민, 김도환 (2004)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31-47.

4. 정체성 측정

논문명 / 저서명	저자 / 출판연도	학회지명 / 출판사명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김형태 (1989)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타당화 연구	박아청 (2003)	교육심리연구, 17(3), 45-70.
Rorschach 검사에 나타난 경계선 인격장애집단의 방어기제	임혜진, 신동균, 이민수 (2001)	정신병리학회지, 10(1), 35-43.
방어기제 성숙도 연구	김정옥 (2003)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47-763.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성한기 (2001)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3), 33-48.
성공적 삶의 심리학	한성열 역 (2005)	나남출판
Ego Defenses	Conte, H. R. & Plutchik, R. (1995)	John Willey & Sons
Toward the development of an objective assessment of ego identity status.	Adams, G. R. & Shea, J. E. (1979)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 81-89.
A test of Erikson's theory of ego-stage development by means of a self-report instrument.	Boyd, R. D., & Koskela, R. N. (1970)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38, 1-14.
An Eriksonian measure of personality development in college students.	Constantinople, A. (1969)	Developmental Psychology, 1, 357-372.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Dignan, M. H. (1965)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476-483.
Identity formation in the shadow of conflict: Projection drawings by Palestinian and Israel Arab children from the West bank Gaza.	Elbedour, S., Bastien, D. T. & Center, B. A. (1997)	Journal of Peace Research, 34(2), 217-231.
Natural history of male psychological health: V. The relation of choice of ego mechanisms.	Vaillant, G. E. (1976)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3, 535-545.

Development of an objective measure of identity achievement status.	Simmons, D. D. (1970)	Journal of Projective Techniques and Personality Assessment, 34, 241–244.
The relationship of ego identity to psychosocial effectiveness.	Rasmussen, J. E. (1964)	Psychological Report, 15, 815–825.
From trust to intimacy: A new inventory for examining Erikson's stages of psychosocial development.	Rosenthal, D. A., Gurney, R. M. & Moore, S. M. (1981)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 525–537.

5. 국내연구 : 한국인 특성

논문명 / 저서명	저자 / 출판연도	학회지명 / 출판사명
한국인의 성공의식과 귀인양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김의철, 박영신 (1998)	교육심리연구, 12(2), 51-84.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박영신, 김의철 (2003)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김의철, 박영신 (2004)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103-137.
한국인의 문제해결과정: 문화적 요소의 영향	김창대 (1994)	청소년상담연구, 2, 96-107.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 비교문화적 고찰	조궁호 (1996)	사회과학연구, 5, 27-86.
한국인의 주관적 안녕과 정서의 조절	조궁호 (1997)	사회과학연구, 5, 29-283.
문화유형과 동기의 차이 : 한국인의 동기이해를 위한 시론	조궁호 (2000)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83-122.
문화성향과 통제양식	조궁호 (2003)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2), 85-106.
동아시아 집단주의의 유학사상적 배경	조궁호 (2004)	사회과학연구, 12(1), 6-42.
한국인의 가족가치 - 5개국 비교 연구 -	은기수 (2004)	정신문화연구, 27(3), 137-182.
세계화 시대의 국민정체성 비교연구	김병조 (2002)	정신문화연구, 25(2), 31-53.
지난 백년간의 한국인의 가치, 신념, 태도 및 행동의 변화	차재호 (1994)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40-58.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자기	최상진 (1993)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2), 24-33.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최상진, 유승엽 (1992)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137-157.

우리에 대한 비교문화심리학적 이해: 집단주의-개인주의 관점	이중한 (2005)	한국학중앙연구원. 제 2회 한국학대회 자료집, 958-971.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갈등 중재자의 특성	채정민 (2005)	한국학중앙연구원, 제 2회 한국학대회 자료집, 935-948.
한국인의 ‘자기’에 대한 의식	박아청 (1999)	교육인류학연구, 2(3), 37-50.
첫부모됨과 영아기 육아에서의 문화간, 세대간 연속성과 비연속성 : 한국, 중국, 미국 가정을 중심으로	유가효 (1999)	한국아동학회 2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5-42.
한국인의 신체화 경향에 관한 논고	김광일 (1972)	최신의학, 15, 1440-1443.
신체화 장애의 임상적 연구	김명정, 김광일 (1984)	정신건강연구, 2, 137-158.
전통 가족에서의 자녀양육 및 사회화에 관한 연구	정옥분, 김광웅, 김동춘, 유가효, 윤중희 등 (1996)	한국가족복지학, 1, 46-66.
임신 및 출산 풍습에 관한 비교문화연구: 한국, 홍콩, 및 미국의 어머니-할머니 세대를 중심으로	민하영, 유안진 (2003)	대한가정학회지, 41(4), 157-168.
한국의 출생의례와 아기행사 풍속의 문화간, 세대간 비교 연구: 홍콩 및 미국의 할머니 세대와 어머니 세대를 중심으로	민하영, 유안진 (2004)	대한가정학회지, 42(4), 55-68.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의식과 실태: 한국인의 양육문화	정영숙, 박영애, 이경희 (1997)	한국생활과학회 제 15차 세미나, 7-25.
여성 우울증 환자의 신체증상에 관한 연구	박제순, 이근후 (1981)	신경정신의학, 20, 382-391.
한국의 문화와 아동발달	이소은 (1999)	교육생활과학논총, 2, 53-64.
한국의 전통육아방식	유안진 (1986)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문화와 한국인	국제한국학회 (1998)	사계절
현대 한국사회의 일상문화코드	박재환, 일상성 · 일상생활연구회 (2004)	한울아카데미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회 (1997)	성원사
한국인 그들은 누구인가?	중앙일보 (2005)	중앙일보 2005년 10월 14일자
한국인	윤택림 (1970)	현암사
성격의 5요인 이론에 기초한 척도의 구성을 위한 예비연구	육성필 (1994)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양사상과 심리학	임능빈 (1995)	성원사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최재석 (1994)	현음사
Schizophrenic delusions among Koreans, Korean-Chinese and Chinese: A transcultural study.	Kim, K. I., Li, D., Jiang, Z., Cui, Z., Lin, L., Kang, J. J., Park, K. K., Chung, E. K. & Kim, C. K. (1993)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39, 190-199.

6. 국외연구 : 한국인 특성

논문명 / 저서명	저자 / 출판연도	학회지명 / 출판사명
The Harvard Korean Studies Bibliography	Harvard University Korea Institute (1999)	Harvard University Korea Institute
한국인의 심리에 관한 보고서	프레드 엘퍼드 저, 남경태 역 (2000)	그린비
한말 외국인 기록	H. B. 헐버트 등 저, 신복룡 역 (2000)	집문당
Women's class mobility and identities in South Korea: A gendered, transitional narrative approach	Abelmann, N. (1997)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6(2), 398-420.
South Korean development in wider perspective	Dore, R. P. (1977)	Pacific Affairs, 50(2), 189-207.
Race, ethnic options, and ethnic binds: Identity negotiations of second-generation Chinese and Korean Americans.	Kibria, N. (2000)	Sociological Perspectives, 43(1), 77-95.
Asia-Americans: The Chinese, Japanese, Koreans, Pilipinos, and Southeast Asians.	Kitano, H. H. (1981).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54, 125-138.
Success and education in South Korea.	Sorensen, C. W. (1994).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38(1), 10-35.
The timing of family formation: Structural and societal factors in the Asian context.	Rindfuss, R. R. & Hirschman, C. (1984)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1), 205-214.
Studies on Korea in transition.	Robinson, M. (1981)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40(2), 399-400.
Changing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 in East Asias.	Martin, L. G. (1990)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10, 102-114.

Korean folklore and attitudes toward China.	Olmsted, D. L. (1955)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68(267), 51–55.
A search for Korean uniqueness.	Palais, J. B. (1995)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55(2), 409–425.
Recent studies of Korea..	Patterson. W. & Conroy, H. (1972)	Pacific Affairs, 45(3), 409–412.

7. 국내논문 : 정체성과 심리사회적 변인 간 관계

논문명 / 저서명	저자 / 출판연도	학회지명 / 출판사명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최성열 (2001)	아동교육, 10(1), 119-132.
후기 청소년의 개체화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백지숙 (1999)	아동학회지, 20(2), 269-277.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학래 (1996)	연세사회복지연구, 4, 328.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가유형 및 관련변인들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허정식 (1998)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9(1), 133-144.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백문화, 조병은 (1992)	대한가정학회지, 30(2), 219-236.
청소년기 회심과 자아정체성 형성의 상호역동성에 관한 연구	이규민 (1992)	종교연구, 23, 117-148.
청소년의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조아미 (2002)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91-108.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현희순, 김양순 (2003)	아동학회지, 20(1), 249-26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김성일, 김남희 (2001)	한국심리학회: 발달, 14(1), 75-8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박아청 (1999)	교육심리연구, 17(3), 373-392.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분석	이현림, 이분택 (2003)	청소년학연구, 10(2), 155-169.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전인교육 프로그램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허정철 (2004)	사회복지정책, 20, 33-62.
복합순환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과 청년기 자아정체감 발달과의 관계	박장희, 정옥분 (2002)	대한가정학회지, 40(1), 49-63.
자아-아이덴티티와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배제현 (1993)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국내논문 : 다양한 집단의 정체성

논문명 / 저서명	저자 / 출판연도	학회지명 / 출판사명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심리사회적 적응 :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유안진, 민하영, 권기남 (2001)	대한가정학회지, 39(3), 135-149.
산업체고교와 인문계고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비교	배제현 (1993)	청소년학연구, 1(1), 77-91.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김경희, 이희정 (2002)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5(4), 1-23.
장애인수용시설 지체부자유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서운, 류중길 (1998)	청소년학연구, 5(3), 91-114.
비행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비교	배제현 (1993)	재활심리연구, 1(1), 71-83.
재미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의 성격과 정체의식의 발달	박아청 (1998)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8(1), 159-170.
멕시코 한인 후손들의 정체성 연구: 현황과 정책대안 -유카탄 지역-	김기현 (2004)	스페인어문학, 31, 327-345.
An ethnographic study on the ethnic identity of Korean-American Adolescents	신재영 (1996)	교육학연구, 34(5), 429-444.

9. 국내논문 : 정체성 촉진 프로그램

논문명 / 저서명	저자 / 출판연도	학회지명 / 출판사명
MMTIC을 활용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학업성취지도 프로그램(SAM) 개발	심혜숙 (1995)	한국심리유형학회지, 2(1), 49-65.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여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효과	이현림, 이분택 (2003)	청소년학연구, 10(2), 155-169.
전인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자아정체감 형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허정철 (2004)	청소년학연구, 11(3), 241-269.

10. 국내논문 : 정체성 관련 기타

논문명 / 저서명	저자 / 출판연도	학회지명 / 출판사명
“Centering”으로서의 상담: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한 모델	이정기 (2003)	기독교상담학회지, 6, 239-27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 : Erikson의 정체이론 확장 및 교육에의 시사점	유혜경 (1983)	교육학연구, 21(3), 49-62.
한국청소년의 정체감 발달 경향에 관한 연구	박아청 (1999)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2), 68-78.
교육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자기의 발달	박아청 (2003)	교육심리연구, 17(2), 45-70.
청년기 자아정체감 발달단계의 특성 분석	박아청 (2004)	교육심리연구, 18(1), 301-312.
쿠바 한인 후손들의 정체성 회복 방안 연구	신정환 (2004)	스페인어문학, 33, 439-452.
아바타와 청소년의 사이버 정체성 발달	김종길, 김문조 (2004)	청소년학연구, 11(2), 185-215.